

Kimony Korea

4

APRIL
2016

■ 키모니가 간다

배드민턴과 결합한 뉴 스포츠 3종

■ 키모니 컬렉션

스포츠 종목양말 KSS 501 시리즈

■ 이달의 키모니 추천상품

레전드 쿠션그립 KGT 203

■ 배드민턴대회 일정



HI-SOFT
LEGEND CUSHION GRIP
KGT 203



스피드민턴



패드민턴



라테스민턴

배드민턴과 결합한 뉴 스포츠 3종

학교체육 '패드민턴' 교육

글, 사진. 홍보팀

뉴 스포츠(New Sports)란 기존의 근대 스포츠에서 융합됐거나 새롭게 발전한 스포츠 종목을 일컫는다. 현재는 500여 개가 넘는 뉴 스포츠 종목이 있고, 매주 새로운 뉴 스포츠 종목이 생성되고 진화하고 있다. 이에 학자마다 뉴 스포츠에 대한 정의도 분분하다. 통상적 의미로는 모든 사람의 참여와 즐거움을 이끌기 위해 나온 스포츠로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규칙적용을 가지며 경쟁보다는 같이 즐기고 협동하는 형태에 가깝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참가자 중심의 체험형 스포츠라는 점은 확실하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야구, 축구 등과 결합한 티볼¹⁾, 스포츠스테킹²⁾, 플라잉디스크³⁾ 등이 있고 배드민턴형 스포츠에는 스피드민턴, 라테스민턴, 패드민턴 등이 있다. 배드민턴형 스포츠를 대표로 일반 배드민턴과 뉴 스포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1) 티볼(Tee Ball) : T자 형의 막대기 위에 공을 놓고 방향으로 치는 종목으로 야구와 비슷한 변형 스포츠. 야구와 달리 투수는 없고 타자가 볼을 배팅 티에 올려놓고 타격을 하는 스포츠다.
 2) 스포츠스테킹 : 일명 '컵 쌓기'라 불린다. 12개의 스택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또 허물어가며 기술과 스피드를 활용한 경기다.
 3) 플라잉디스크(Flying Disc) : 던지고 받으면서 노는 놀이용 원반형태로 프리스비라고도 부른다.

1. 바닷바람에도 거뜰한, 스피드민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인 마리아 샤라포바가 즐겨 인기를 모으게 된 스피드민턴. 독일의 발명가가 테니스와 배드민턴의 장점을 모아 만든 운동이다. 스피더라 불리는 스피드민턴용 셔틀콕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플레이가 가능하며 공의 무게에 따라 더 멀리 빨리 던질 수 있다. 공을 던질 때 피웅~ 하는 총알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데 순간속력은 최고 290~300km 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익스트림한 스포츠이다. 공이 너무 빠를 때는 익숙해질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는 '편 스피더'도 있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1

최근엔 인기리의 방영된 드라마 MBC <그녀는 예뻐다>의 고준희와 박서준이 한강에서 운동을 즐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라켓은 배드민턴과 테니스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무게도 그쯤으로 생각하면 쉽다. 시중에는 어린이용과 성인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별한 룰 없이도 자유롭게 게임 할 수 있다. 스피드민턴은 배드민턴처럼 치기보다는 살짝 스쿼시처럼 쳐야 한다. 거리도 멀기 때문에 활동량도 꽤 많은 편이다. 또한 스피드라이트가 있어 밤에도 할 수 있다.



2



3



4

- 1. 스피드민턴 set
- 2. 바람과 장소의 영향을 덜 받는 '스피드민턴'
- 3. 최고속도 290~300km에 달하는 스피더
- 4. 초보자용 편스피더

2. 장소에 구애 없이 편하게 즐기는 ‘패드민턴’

패드민턴은 탁구와 배드민턴의 특성을 접목하여 개발된 스포츠다. ‘패드민턴’이라는 탁구 라켓과 흡사한 라켓을 핸들러(Handler)라고 부르기도 한다. 배드민턴과 같이 셔틀콕을 주고 받아넘기는 형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라켓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회사, 사무실, 집 안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운동이 가능하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탁구에 비해 활동량은 적지만 간단하게 칠 수 있어 어린 나이대에서도 많이 즐기고 성인 취미로도 사랑받고 있다.



1



2

배드민턴보다는 치는 느낌이 조금 덜 하지만 칠 때마다 딱! 딱! 소리 나는 타격감이 재미를 더해준다. 1대 1경기보다는 2대 2의 복식경기가 더 재미있고, 상대와의 호흡이 중요한 운동이다. 아이들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르는 데 좋아 교육현장에서도 활용된다.



3



4

3. 혼자서도 잘해요. ‘라테스민턴’

나홀로 스쿼시가 가능한 라테스민턴은 라켓볼+테니스+스쿼시+배드민턴을 결합한 운동이다.

배드민턴과 달리 혼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사람이 할 때는 테니스시합을 하듯 운동하고, 혼자 할 때는 공을 줄에 매단 리턴볼을 이용하여 스쿼시처럼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

캠핑 시 가족 단위로도 많이 하는 오락적인 성격이 강한 운동이다.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테니스 모양 공에 고무줄을 묶고 그 줄에 모래주머니를 묶는다. 그 후 벽이나 바닥에 치면 부메랑처럼 공이 돌아온다.

일일이 공을 주우러 다닐 필요가 없어 편하며 의외로 칼로리 소모가 높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찾는다.

오뎅이처럼 돌아오는 통에 때로는 남모를 승부욕도 느끼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전문적으로 스쿼시나 테니스, 배드민턴을 배우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라테스민턴은 그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1. 체육시간에 이루어진 패드민턴 게임
2. 스코어판 만들기
3.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스코어판
4. 패드민턴 리그전표

패드민턴 수업, 뉴스포츠를 바라보는 긍정의 시선

반송중학교 1학년 박승균 체육 교사

현대 사회에서 체육이라는 과목은 학교체육에서 천대받고 있는 과목 중 하나이다.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여학생이나 나이가 어린 학생이 주로 체육 과목을 꺼린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목적에서 체육수업의 뉴 스포츠가 도입되었다.

배드민턴과 결합한 뉴 스포츠의 하나인 ‘패드민턴’을 실제 체육수업에 활용한다는 경기도 화성의 반송중학교를 찾았다. 1학년 박승균 체육교사는 언제부터 패드민턴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 것일까.



Q 패드민턴 체육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요즘은 뉴 스포츠가 학교체육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패드민턴은 탁구와 배드민턴을 결합한 운동입니다. 계절과 장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배드민턴 수업을 대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쉬운 패드민턴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기술을 연마하지 않아도 쉽게 배우고 시합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육현장에서 ‘패드민턴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A 간략한 이론 설명과 함께 수업시간에는 기본기술 익히기를 4차시 정도 했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남녀를 구분해 경기장을 만들고, 전체 리그전을 실시하여 경기 결과를 통해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패드민턴 시합 전에는 학생들과 점수판을 만들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보통은 휴바닥에 점수를 매기는데 본인들이 직접 점수판을 만드니까 선수도 구분하기 좋고 심판도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패드민턴과 배드민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사실 차이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체육을 쉽게 접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패드민턴’은 저학년이나 체육수업을 꺼리는 학생에게 좋아요. 쉽고 재미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경기장 자체도 배드민턴보다 작아요. 셔플콧도 나사못에 박아놓아서 공의 무게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했습니다. 물론 배드민턴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접하기 쉬운 형태라 패드민턴을 선택했죠. 배드민턴은 실력 향상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패드민턴으로만 전체 수업시간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다른 운동과 적절히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종 패드민턴을 이벤트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 뉴 스포츠 수업은 학생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신체활동을 경험하게 합니다.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 체력은 따라올 것으로 생각해요. ”

스포츠양말 중목 KSS 501

스포츠양말은 일반 양말에 비해 두껍다.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할 때 신는 양말이니 두껍고 쿠션감이 좋아 발이 편하다. 키모니 스포츠 양말은 매쉬망 구조로 되어 있어 통기성이 좋다. 특히 중목양말은 봄,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인기 있는 제품이다. 100% 목화 소재로 만들어 땀의 흡수나 착용감을 높여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기 때문에 피로감을 덜 수 있고, 여기에 섬세한 Y자 편직은 발꿈치부분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키모니 스포츠양말은 우수한 기능성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원색을 적절하게 활용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는 KSS 501 14종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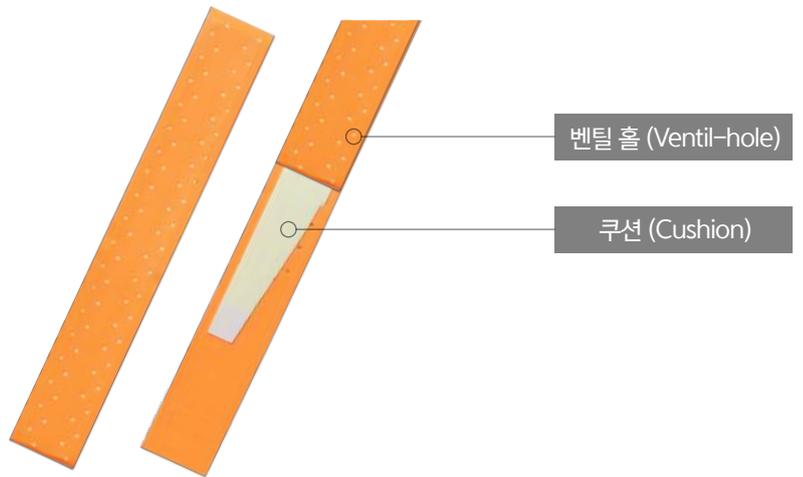




손바닥이 편한 쿠션이 살아있는 레전드 쿠션그립 KGT 203

KGT 203 레전드 쿠션그립은 손이 크거나 쿠션이 있는 그립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좋은 제품이다. 일반 그립에 홀로버 쿠션을 덧대어 따로 언더랩을 감지 않아도 안정적인 쿠션감을 제공한다. 이중 쿠션에 통기성을 더하기 위하여 구멍이 뚫린 원단을 사용했고, 땀이 나거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이다.

그립의 두께는 홀로버쿠션의 두께까지 포함하여 1.15mm로 확실히 두꺼운 편이며, 폭과 길이는 27mm / 105cm로 기존 키모니 그립의 사이즈와 같다.



배드민턴대회 일정

● 국제대회(엘리트) ● 국내대회(엘리트)
● 전국대회(동호인) ● 지역대회(동호인) ● 배드민턴행사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2016 오넥스 인디아오픈 슈퍼시리즈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2 ● 2016 오넥스 인디아오픈 슈퍼시리즈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3 ● 2016 오넥스 인디아오픈 슈퍼시리즈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4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5 ● 2016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6 ● 2016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7 ● 2016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8 ● 2016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9 ● 2016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 2016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 2016 과천시·경인일보 전국배드민턴대회 ● 제10회 태백산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10 ● 2016 말레이시아오픈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 2016 과천시·경인일보 전국배드민턴대회 ● 제10회 태백산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11	12 ● 2016 OUE 싱가포르 오픈 슈퍼시리즈	13 ● 2016 OUE 싱가포르 오픈 슈퍼시리즈	14 ● 2016 OUE 싱가포르 오픈 슈퍼시리즈	15 ● 2016 OUE 싱가포르 오픈 슈퍼시리즈	16 ● 2016 OUE 싱가포르 오픈 슈퍼시리즈 ● 제26회 서울특별시 정기 배드민턴대회 ● 제33회 경남연합회 정기 배드민턴대회
17 ● 2016 OUE 싱가포르 오픈 슈퍼시리즈 ● 제1회 무학대사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 제26회 서울특별시 정기 배드민턴대회 ● 제33회 경남연합회 정기 배드민턴대회	18	19 ● 2016 중국마스터즈 그랑프리 골드	20 ● 2016 중국마스터즈 그랑프리 골드	21 ● 2016 중국마스터즈 그랑프리 골드	22 ● 2016 중국마스터즈 그랑프리 골드	23 ● 2016 중국마스터즈 그랑프리 골드 ● 제23회 정읍시 단풍미인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 제1회 고성 통일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24 ● 2016 중국마스터즈 그랑프리 골드 ● 제23회 정읍시 단풍미인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 제1회 고성 통일배 오픈 배드민턴대회	25	26 ● 201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7 ● 201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8 ● 201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9 ● 201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30 ● 201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 5.1

출처: <배드민턴 타임즈>

kimony
SINCE 1977